

2. 南北韓의 97년 國政 方向으로 본 經協 전망

- 기존의 「한국 배제·대미 접촉」이라는 북한의 기본 태도에는 전혀 변화가 없음
-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대북 유화 정책이 감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여 안보 우위의 성향을 나타내고 있음
- 즉 정부는 4자 회담 등 북한의 태도 변화를 보아가며 경협을 점진적으로 재개해 나가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음
- 경협 재개를 위해서는 3자 설명회 특히 4자 회담이 있어야 할 것임
- 그러나 4자 회담의 개최 여부는 아직 불투명함
- 4자 회담이 없을 경우 올해 남북 경협은 3자 설명회 이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일시적인 재개 국면을 거칠 것이나 하반기 대선 정국에 들어 가면서 다시 위축되어, 전반적으로 침체 분위기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김 대통령,
기자 회견에서
안보를 강조

- 김영삼 대통령은 1월 7일 연두 기자 회견에서 힘의 우위에 바탕한 대북 정책 의지를 밝히면서, 확고한 안보와 평화 통일의 기반 구축을 강조함
- 또 김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4자 회담을 촉구하고, 이 회담에서는 '4 마이너스 2' 즉 남북이 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면서 남북 당사자 주도 원칙을 재확인함

북한,
남북 대화
계속 거부

- 북한은 지난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김영삼 정부에 게 '기대할 것이란 아무 것도 없다'고 하여 당국간 대화 거부 등 기존의 대남 태도에 변화가 없음을 보여줌
- 신년사는 올해 북한의 최대 당면 과제를 체제 위기의 가장 주된 요소인 식량 기근 등 경제난 해소에 두고 있음
- 경제난 해소 및 체제 생존과 관련, 북한의 신년사는 '통일 문제의 국제화'를 주장하며 한국을 배제한 채 對美·對日 관계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음
- 북한은 경제난 해소 차원에서 남북 경협에 대해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지만, 체제 수호 차원에서 남북 당국자

- 대화불 거부하고 있음
 - 또 한국을 ‘主敵’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군부의 영향력과 군사 활동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계속 증대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음

- 냉각 상태의 남북 관계가 올해도 계속될 듯**

 - 남북한의 상호 정책적 입장 차이로 인해, 남북 긴장과 대결 구도가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즉 남북한 모두 안보를 우위에 두면서도, 당국간 대화 등 당사자 해결 원칙을 강조하는 한국의 입장과 남북 대화 거부 등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를 주장하는 북한의 입장이 서로 충돌하고 있음

- 당장 경협 재개는 어려울 듯**

 - 따라서 잠수함 사건의 일단락에도 불구하고 남북 경협이 당장 재개될 가능성은 크지 않음
 - 북한의 태도가 불변인 상황에서, 12월 大選을 앞두고 정부는 지나친 대북 유화 정책이 감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여 안보 우위의 보수 성향을 보여주고 있음
 - 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북한 문제로 懸手를 두는 것은 최대한 피할 것으로 예상됨
 - 기업인 방북이나 남북 경협 재개는 국내 여론, 북한의 태도 변화, 국제 분위기 등을 보아 가며 4자 회담을 위한 3자 설명회 이후에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
 - 민간 차원의 인도적 식량 지원은 국제 기구와 보조를 맞춰 진행하되, 정부 차원의 지원은 북한 당국의 공식 요청 등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

- 4자 회담이 있어야 경협 재개가 가능할 것**

 - 올해 남북 경협은 3자 설명회와 특히 4자 회담에 크게 영향받을 것으로 예측됨
 - 1월 29일로 참여 있는 3자 설명회가 개최될 경우, 정부는 4자 회담을 위한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국내 기업 실무 기술진의 재방북 승인 등 몇가지 제한적인 경협 재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임
 - 하지만 3자 설명회가 4자 회담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거나 4자 회담에서 남북 당사자 주도 원칙이 확실치 않을 경우, 정부는 국내 여론을 의식하여 경협을 적극적으로 재개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4자 회담의 개최 여부와 함께 남북 당사자 주도 원칙의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임

올해 경협은 제한적 재개국면을 거쳐, 다시 위축, 침체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남북 주도의 4자 회담이 없을 경우, 올해 남북 경협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부분적이며 일시적인 재개국면을 거쳐, 전반적으로 침체 분위기를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됨
 - 올 하반기부터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 정부의 운신의 폭은 지금보다 더 좁아질 것이며, 정부는 대선에 따른 보수 성향의 표를 의식하여 안보 우위의 보수 정책을 더욱 선호할 것으로 전망됨
 - 대선 국면에서 남북 정상 회담도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올 상반기 동안 4자 회담과 관련하여 경협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재개될 가능성은 있지만, 대선 국면으로 접어드는 하반기부터 경협은 다시 위축될 것으로 전망됨

경수로 사업은 꾸준히 계속 추진될 것

- 하지만 국제적으로 이해 관계가 걸려 있는 경수로 사업은 약간의 굴곡은 있더라도 꾸준히 계속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대북 경수로 사업은 '부지 인수 의정서'와 '서비스 의정서'가 체결되어, 부지 정리를 위한 1차 공사가 착공될 수 있는 상태에 있음
 - 이에 따라 제7차 부지 조사단과 부지 정비 공사 실무협상단이 2월쯤 북한에 파견될 예정임
 - 그러나 부지 정리를 위한 공사 착공은 법적·기술적 문제와 재원 문제, 착공 계약 문제 등으로 인해 3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이 태 섭)